

## 보도자료

2020년 7월 29일(수)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전파검사본부 전파관리팀 팀장 유선준 (061) 350-1591  
배포: 운영지원단 총무홍보팀 사원 최혜인 (061) 350-1325

### KCA, 일명 ‘SOS워치’ 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선정

- 「2019 공공기관 혁신·협업·시민참여 우수사례집」 수록
- 해양사고 시 골든타임 확보 가능한 조난신호 발사장비 개발

-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‘KCA’)이 만든 ‘소형선박 조난신호 원격·자동 발사장비’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「2019 공공기관 혁신·협업·시민참여 우수사례집」에 혁신부문 우수사례로 실렸다.
  -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업무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한 25개 공공기관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.
  - KCA의 ‘소형선박 조난신호 원격·자동 발사장비’는 해양사고 시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조난신호를 해경 및 주변 선박에 즉시 발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비이다.
- 국가 주요통신망과 인명안전 무선국(항공, 선박 등)의 전파품질을 관리하는 KCA는 선박무선설비 검사를 수행하면서 소형선박의 사고 비중이 확대되는 점에 주목했다.
  - 이는 5톤 미만 소형선박에서 보통 1~2인이 승선하기 때문에 추락, 전복 등의 긴급 상황에서는 실내 비상용무전기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.
- KCA는 검사현장에서 접한 어민들의 목소리와 관련 통계자료를 시작점으로 2017년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아이디어 실체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.

- 이렇게 탄생한 안전장비 2종이 인체부착형(손목시계형) 원격장치와 사고감지형(선박센서형) 자동 조난신호 발사장비다.

□ KCA 정한근 원장은 “국민안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해양사고 수색·구조에 소요되는 사회적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”며 “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어민 보급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의 후속노력을 지속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

#### [참고] 소형선박 조난신호 원격·자동 발사장비의 장점

개발된 조난발사장비 사용을 위하여 선박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고 기존 설치된 VHF 대역 무전기와 연동하여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. 또한 해수부에서 e-내비게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(LTE-M)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준비했다.

